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9호 [무계 제26143호] 주107(2018)년 9월 2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청진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나라 전체 인민이 땅이 제시한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물적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끝까지 나아감까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화의 장대한 동음이 울려 퍼졌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화한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은 열렬한 애국충정과 비상한 창조기풍으로 산소일일용량포를 비롯한 방대한 주체화대상공사를 승리적으로 계속함으로써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결정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완공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이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내각부총리 김덕홍동지, 함경북도, 관개부문 일꾼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들 격대원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현판단원 일꾼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자력정성, 강고분류의 투쟁기풍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공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강건 7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할 뜻깊은 시기에 북방의 대야금기지에서 100% 우리의 기술과 연료, 원료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이 확립되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철생산계획의 핵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과업을 펼치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주체화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500여일간의 지칠한 격전을 벌여 방대한 대대상공사를 승리적으로 계속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고 감사문은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결사관철의 정신과 대주체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산소일일용량포와 용융용수압



생로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산소분리기를 원상복구하고 로온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림제건을 벌려 많은 활강재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와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분소 주체철생산의 심장부인 1만5,000m³산소분리기설치공사를 기한전에 끝내고 주체화대상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맡아 해결함으로써 금속건설과 대상설비조립에서 명성을 떨쳐온 주력부대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고 감사문은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과학기술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청진광산금속대학, 국가과학원 등 여러 단위 전문가들의 두뇌전, 힘단물과정에 의하여 비록세월침범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고 강철중심의

본론한 기술적담보가 마련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철설계연구소와 합용화학설계연구소, 용성기계설계연구소의 설계일꾼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수천대의 설계도면들을 일제히 보장하였으며 방대한량기계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현관부문 로동계급은 대상설비물과 부품공급을 제때에 생산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고 감사문은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당지도소조와 함경북도당위원회, 공산시위부 일꾼들은 현실적사상공제와 이신작적의 투쟁기풍, 치밀한 경제조직 사업으로 전투장마다에 혁명적, 애국열이 끓어번지게 하고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으며 녀성파의지연대와 도안의 인민들의 성의있는 지원은 전투원들

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높이 따라왔으며, 따라배우기, 정형교환운동이 맹렬히 전개되는 속에서 김책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용모와 기술기능수준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련합기업소의 주요생산공정과 연료, 기계충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방대한 투쟁명령을 실현하는데 적극히 이바지하였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내각부총리 김덕홍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체인 김광남동지, 직장장 최주철동지, 금속공업성 강철설계연구소 기사장 김철민동지가 토론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전투적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건원불망의 투쟁으로 나라의 강철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공사에서 위훈을 세운 전체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방대한 투쟁명령을 실현하는데 적극히 이바지하였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체인 김광남동지, 직장장 최주철동지, 금속공업성 강철설계연구소 기사장 김철민동지가 토론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자력자강의 창조물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운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에게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보내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주체철생산계획완수를 위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같은 사랑을 심장깊이 새기고 김책로동계급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지원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방대한 공사과제를 최단기간내에 끝내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에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주체화대상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북스에 의한 철생산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철현을 빛나게 실현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일꾼들이 주체화대상건설에서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경제건설대전선의 전열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림에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총정의 입전신심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주체철생산체제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금속공업부문을 혁명적인 총공세의 전열에 내세운 당의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물적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의 권위를 철강제로 건설사위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파고들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무던히 끌어올려 주체철, 주체강관 생산을 최대한 높여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를 총정리로 받들어 주체철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동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임명된 주체화대상물들을 돌아보았다.



삼자연군건설에 필요한 물동을 집중수송

철도운수부분에서

은 나라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물적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타면지는 요즘 철도운수부분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삼자연군건설의 건설장소에 필요한 물동수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철도성적으로 9월에 들어와 지금까지 수만의 세멘트와 수천의 강재 등 방대한 물동들이 삼자연군건설의 건설장소에 집중수송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철도운수부분에서는 나라의 수송수요와 철도인수송능력을 정확히 라산련대 기초하여 수송계획부터 바로세우고 수송과정전반이 치차처럼 맞물리게 하여야 합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일꾼들과 수송인사들이 함북도 북부지역 북쪽수송선구간에 밀려있던 투쟁기풍을 삼자연군건설의 건설장소에 필요한 물동수

송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의 일꾼들은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물동을 삼자연군건설의 건설장소에 보내주기 위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해당 부문 일꾼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물동확보상태에 맞게 배치와 집중수송을 련차전성 할피적으로 하는 한편 집중수송열차들이 전속으로 달리도록 정연한 사명지휘체제를 확립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평양철도국에서 집중수송에 동원된 기관차들의 심동력을 높이고 화차의 회차일수를 줄이는데 힘을 넣어 수송성적을 올리고있다. 국의 일꾼들은 수송이자 건설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관차, 화차들의 수리정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기와 함께 건설기초작업을 제때에 집중수송열차가 도착하여 제때에 도착하도록 하고있다.

평양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송인사들이 자력정성, 강고분류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삼자연군건설의 건설

장소에 필요한 물동수송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청진철도국의 일꾼들은 운전지휘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집중수송열차들의 움직임을 두체적으로 장악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정시기와 부미가작업을 예견정성기체 짜고들어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함흥철도국에서도 강한 규율과 질서로 세워 차들이와 차우들이를 신속히 하고 집중수송열차들에 대한 경사를 기동적으로 집행하여 삼자연군건설의 건설장소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성과 철도국에 여러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무던치는 예로와 난관을 파김치 뚫고 나가며 중산물들을 힘있게 벌려 집중수송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철도운수부분의 일꾼들과 수송인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높고 올려주는 증송의 기적소리는 삼자연군구간에 멀쳐나선 건설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정경현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설계에서 큰 몫을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공화국강건 일꾼들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수백개 건설대상의 설계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지금까지 1천여건의 건축형성안들을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중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소 지도해주신 건축형성안도 740여건이 된다. 또한 삼자연군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건설에 대한 설계를 훌륭히 보장하여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크나큰 기쁨을 드러내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축설계부문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조부들 안고 설계의 모든 부분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삼자연군건설과 원산강마해안관람지구건설을 비롯하여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평양건축종합대학

은 큰 몫을 맡고있다. 건축설계와 시공을 맡은 대상만도 수백개에 달한다.

이에 맞게 대학의 일꾼들은 올해 정초부의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령향전성을 할피적으로 하면서 교육자들의 정신력을 총괄시켜나갔다. 또한 일꾼들이 건설대상들에 달려나간 현장에서 작전하고 연구정밀단의 과학연구활동을 위한 조건보장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들여왔다.

올해에 대학의 많은 연구성원들이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원에 망라되거나 현지에 파견되어 과학연구활동을 맹렬히 벌리면서 대상건설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다.

특히 평양교원대학과 평양무래도전차공장의 개건, 고강-일문철길건설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여러 대상건설들에서 대학연구정밀단이 거둔 성과들은 교원, 연구사들을 크게

데에 망라된 건축대학의 연구정밀단성원들은 공화국강건 70돐 건축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융합과파와 조영도파를 끌어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눈여겨보아 원만히 해결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설계정밀단은 이처럼 수백개 대상의 방대한 설계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150여개 대상에 대한 740여건의 건축형성안을 완성한데 이어 50여개 대상의 400여건의 건축형성안들을 또다시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연구정밀단들은 단원합진소건설과 평양대구장개건공사, 평양시의 유외장소에서 유외시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실질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

본사기자 공로혁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여 발양시키자

의학과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강원도소아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회주의보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강원도소아병원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의학과기술발전이 확고히 이바지할수 있게 병원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실현하고 있는 강원도소아병원의 일군들이 주목된다.

의학과기술발전이 확고히 이바지할수 있게 병원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실현하고 있는 강원도소아병원의 일군들이 주목된다.

의학과기술발전이 확고히 이바지할수 있게 병원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실현하고 있는 강원도소아병원의 일군들이 주목된다.

아무때나 요구대로 볼수 있도록 하지만 풍부한 자료를 구축하는것이 병원정보화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정보화사업에서 실비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자료를 구축하는것이 또한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는 의미상장한 이야기였다.

이곳 일군들이 병원정보화사업을 의학과기술발전의 밑거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병원의 정보화사업에서 실비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자료를 구축하는것이 또한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는 의미상장한 이야기였다.

이곳 일군들이 병원정보화사업을 의학과기술발전의 밑거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병원의 정보화사업에서 실비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자료를 구축하는것이 또한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는 의미상장한 이야기였다.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현실에 맞게 정보화사업을 따라세우자면 뛰어나게도 자료기지가 구축이 기본이었다.

이들의 사업에서 좋은것은 또한 병원정보화사업이 병원정보화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병원에 발을 디딘것이 되었다.

이들의 사업에서 좋은것은 또한 병원정보화사업이 병원정보화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병원에 발을 디딘것이 되었다.

이들의 사업에서 좋은것은 또한 병원정보화사업이 병원정보화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병원에 발을 디딘것이 되었다.

이들의 사업에서 좋은것은 또한 병원정보화사업이 병원정보화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병원에 발을 디딘것이 되었다.

어린아들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루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내놓는것도 좋은 사례로 된다.

소화기내과 의과일군들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약초를 가지고 어린이들의 심리와 체질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구루병치료약을 내놓은데 기초하여 임상실험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많은 치료성공을 이룩하였다.

이와 병치로써 쓰이던 많은 약물을 절약하면서도 치료효과를 훨씬 앞당길수 있는 치료방법이 임상실험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었다.

이 모든 성과를 이룩하는데 구내방에 구축되어있는 방대한 자료기지가 큰 몫을 내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내놓는 과학기술의 힘을 많이 생각하며 지난 시기에 비해 고령치료를 훨씬 높이고 수진에 달하는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도입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소아구루병에 대한 치료실험에서는 병원에서 내놓은 여러건의 소문문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통하여 병원의 치료실험을 높이고 수진에 달하는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도입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가치있고 영구적이며 다목적이며

공화국상징 70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성대히 맞이한 크나큰 공적의 자부심을 안고 의과일군 합성제약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의약공생산업에 필요한 원료와 생산공정의 국산화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고있다.

위대한 병도 자립정립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약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제약공업을 하두발라 추켜세우는데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우리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제약공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데 당하고 총이 큰 연구공로를 세우고 완강한 두장을 펼쳐나가고있다.

병도의 지도로써 이곳 일군들은 연구사들속에 제약공업을 추켜세우는것은 사회주의보건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연구사들의 정신향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짜고든 연구의 약공생산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 및 중간제품의 국산화를

의학연구원 합성제약연구소에서

원료나 연구요구를 현실성 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연구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질적제도의 불합치하여 최단기간에 최대의 연구실적을 내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연구실적을 높이고있다.

연구사업에서 자각적책임주의를 높이 발휘하기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과 연구실력의 분위주의를 절제적으로 없애며 필요한 원료 및 중간제품을 다량적으로, 원할하게 조달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현재 공적합성제약연구소의 원료 및 중간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서로의 지혜를 합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눈야를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힘있게 벌임으로써 조성이 높은 우리 시의 눈야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의약공생산업에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과학연구사업에 총력투입하여 병원정보화사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가지 약공생산업에 계속 투자를 가함으로써 년간 의약공생산업에 공적합성제약연구소의 원료 및 중간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의약공생산업에 총력투입하여 병원정보화사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가지 약공생산업에 계속 투자를 가함으로써 년간 의약공생산업에 공적합성제약연구소의 원료 및 중간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다.

한 여성이 러친 진정의 목소리

제 마음은 풀린 그 녀성은 이때부터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령치료를 받게 되었다.

근로부라는 치료기간과 귀뚜라미라는 녀성의 병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하였다. 환자의 병상대를 보며 주저하며 감동깊게 지켜보았다.

위대한 병도 자립정립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이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는것처럼 보건의 정성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몇달전 어느날이었다. 이날 오후엔부부 같이 살고있는 한 여성은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병원에 실려온 그녀는 고령치료를 받게 되었다. 온갖 정성을 다 하였다. 환자의 병상대를 보며 주저하며 감동깊게 지켜보았다.

위대한 병도 자립정립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이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는것처럼 보건의 정성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몇달전 어느날이었다. 이날 오후엔부부 같이 살고있는 한 여성은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병원에 실려온 그녀는 고령치료를 받게 되었다. 온갖 정성을 다 하였다. 환자의 병상대를 보며 주저하며 감동깊게 지켜보았다.

현대적인 의료기구가 나오기까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평양기공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우리 시의 전기수술기가 임상실험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와 전기수술기 외에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우리 시의 전기수술기가 임상실험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와 전기수술기 외에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우리 시의 전기수술기가 임상실험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와 전기수술기 외에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우리 시의 전기수술기가 임상실험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만수무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5일 재일동포 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민영을 위한 만민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위하여 흥분을 재일동포들의 원리와 리의를 대표하는

주체적애의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오기를 진정하고 인사할 드리고있다.

과학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과학교육을 중시하는 진보적정신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심장에 새긴 이들은 모두교육부 문화교육국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적으로 도와주어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부문에 대한 무자본체적으로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교육부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 3월말 관하부대에 내려왔던 어느 한 군부대장은 관공군 구당소학교의 새 교사건실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고 즉시 군부대지휘관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구당소학교 새 교사건실

우리 부대가 맡아수행하자, 교육지원사업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만민초석의 애국사업이다.

군부대장의 이런 불같은 호소에 모든 관원들은 일장으로 고조되었다.

다음날부터 많은 량의 돈과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이 건설장에 현이 도착하고 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험실건립을 부대가 맡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공작기와 대형회차수차들을 동원하여 하두동안에 기초공학공사를 끝내놓고 조지사업을 착공하였다. 며칠만에 벽체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총망치와 외무미장을 짧은 기간에 완수한데다 관공군들은 내부미장도 붙이면서 나뉘어 해체하였다.

완성된 실험실건립을 학교에

넘겨주기 전에 주변정리를 비롯하여 하는 한편 건물안에 화장도 조성하고 자그마한 기온관측을 가져다 정성껏 심어준 이들의 아름다운 소명을 두고 학교의 교육지원과 주변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고 내세우시는 우리 군대의 사상적정신공포를 더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어느 한 군부대지속 수선사업소의 일군들도 외수구역 마산고급중학교를 불성관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수선대의 예정멘비전, 태양발전지관, 축전지, 카메라들과 함께 많은 량의 외장재를 해결해주어

우리 부대가 맡아수행하자, 교육지원사업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만민초석의 애국사업이다.

군부대장의 이런 불같은 호소에 모든 관원들은 일장으로 고조되었다.

다음날부터 많은 량의 돈과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이 건설장에 현이 도착하고 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험실건립을 부대가 맡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공작기와 대형회차수차들을 동원하여 하두동안에 기초공학공사를 끝내놓고 조지사업을 착공하였다. 며칠만에 벽체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총망치와 외무미장을 짧은 기간에 완수한데다 관공군들은 내부미장도 붙이면서 나뉘어 해체하였다.

완성된 실험실건립을 학교에

넘겨주기 전에 주변정리를 비롯하여 하는 한편 건물안에 화장도 조성하고 자그마한 기온관측을 가져다 정성껏 심어준 이들의 아름다운 소명을 두고 학교의 교육지원과 주변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고 내세우시는 우리 군대의 사상적정신공포를 더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어느 한 군부대지속 수선사업소의 일군들도 외수구역 마산고급중학교를 불성관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수선대의 예정멘비전, 태양발전지관, 축전지, 카메라들과 함께 많은 량의 외장재를 해결해주어

우리 부대가 맡아수행하자, 교육지원사업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만민초석의 애국사업이다.

군부대장의 이런 불같은 호소에 모든 관원들은 일장으로 고조되었다.

다음날부터 많은 량의 돈과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이 건설장에 현이 도착하고 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험실건립을 부대가 맡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공작기와 대형회차수차들을 동원하여 하두동안에 기초공학공사를 끝내놓고 조지사업을 착공하였다. 며칠만에 벽체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총망치와 외무미장을 짧은 기간에 완수한데다 관공군들은 내부미장도 붙이면서 나뉘어 해체하였다.

완성된 실험실건립을 학교에

넘겨주기 전에 주변정리를 비롯하여 하는 한편 건물안에 화장도 조성하고 자그마한 기온관측을 가져다 정성껏 심어준 이들의 아름다운 소명을 두고 학교의 교육지원과 주변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고 내세우시는 우리 군대의 사상적정신공포를 더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어느 한 군부대지속 수선사업소의 일군들도 외수구역 마산고급중학교를 불성관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수선대의 예정멘비전, 태양발전지관, 축전지, 카메라들과 함께 많은 량의 외장재를 해결해주어

우리 부대가 맡아수행하자, 교육지원사업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만민초석의 애국사업이다.

군부대장의 이런 불같은 호소에 모든 관원들은 일장으로 고조되었다.

다음날부터 많은 량의 돈과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이 건설장에 현이 도착하고 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험실건립을 부대가 맡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공작기와 대형회차수차들을 동원하여 하두동안에 기초공학공사를 끝내놓고 조지사업을 착공하였다. 며칠만에 벽체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총망치와 외무미장을 짧은 기간에 완수한데다 관공군들은 내부미장도 붙이면서 나뉘어 해체하였다.

완성된 실험실건립을 학교에

넘겨주기 전에 주변정리를 비롯하여 하는 한편 건물안에 화장도 조성하고 자그마한 기온관측을 가져다 정성껏 심어준 이들의 아름다운 소명을 두고 학교의 교육지원과 주변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고 내세우시는 우리 군대의 사상적정신공포를 더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어느 한 군부대지속 수선사업소의 일군들도 외수구역 마산고급중학교를 불성관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수선대의 예정멘비전, 태양발전지관, 축전지, 카메라들과 함께 많은 량의 외장재를 해결해주어

우리 부대가 맡아수행하자, 교육지원사업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만민초석의 애국사업이다.

군부대장의 이런 불같은 호소에 모든 관원들은 일장으로 고조되었다.

다음날부터 많은 량의 돈과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이 건설장에 현이 도착하고 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험실건립을 부대가 맡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공작기와 대형회차수차들을 동원하여 하두동안에 기초공학공사를 끝내놓고 조지사업을 착공하였다. 며칠만에 벽체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총망치와 외무미장을 짧은 기간에 완수한데다 관공군들은 내부미장도 붙이면서 나뉘어 해체하였다.

완성된 실험실건립을 학교에

넘겨주기 전에 주변정리를 비롯하여 하는 한편 건물안에 화장도 조성하고 자그마한 기온관측을 가져다 정성껏 심어준 이들의 아름다운 소명을 두고 학교의 교육지원과 주변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고 내세우시는 우리 군대의 사상적정신공포를 더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어느 한 군부대지속 수선사업소의 일군들도 외수구역 마산고급중학교를 불성관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수선대의 예정멘비전, 태양발전지관, 축전지, 카메라들과 함께 많은 량의 외장재를 해결해주어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이 진행된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이 평양에서 진행된다.

10월초부터 김일성경기장,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경기장, 경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전작을 순교자를 가두는성

참가자들은 나라의 해방과 부강민영, 인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영광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경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손님들은 주제사상과 만경대 박물관 소년궁전, 자연 박물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 곳 참관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만경대경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손님들은 주제사상과 만경대 박물관 소년궁전, 자연 박물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이들은 만경대경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손님들은 주제사상과 만경대 박물관 소년궁전, 자연 박물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며

넘겨주기 전에 주변정리를 비롯하여 하는 한편 건물안에 화장도 조성하고 자그마한 기온관측을 가져다 정성껏 심어준 이들의 아름다운 소명을 두고 학교의 교육지원과 주변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고 내세우시는 우리 군대의 사상적정신공포를 더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어느 한 군부대지속 수선사업소의 일군들도 외수구역 마산고급중학교를 불성관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수선대의 예정멘비전, 태양발전지관, 축전지, 카메라들과 함께 많은 량의 외장재를 해결해주어

《조선중앙통신》

도이힐란드대사관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주조 도이힐란드대사관과 우리측이 25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우성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 대외경제성 부상 리광관 등, 외교인사총국 부총리장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김정애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떠나갔다

김정애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김정애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실천가들

수도려객운수국 아래 단위 일군들의 투쟁기풍을 놓고

지난 8월 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여주시면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며 보내 기뻐하시였다.

이 차량은 새 성과속에는 당시 바란만한 신도 마음껏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당정책결사관철의 제1기수답게 새형의 궤도전차시운전을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 수도려객운수국 아래단위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래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중순 어느날 밤, 수도려객운수국 당책임일군의 방으로 두 일군이 들어섰다. 약속이나 한듯이 나란히 들어선 그들은 창건전 혁명궤도전차사업 소 지체인과 김일남 본수궤도전차사업소 초급당위원장이었다.

깊은 밤 불꽃 나란한 두 일군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당책임일군에게 창건전지체인이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새형의 궤도전차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에게 뒤집새로 김일남초급당위원장이 당책임일군에게 다

가서며 말했다.

《새형의 궤도전차시운전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고 주장했던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서로 경계적으로 제기하는 두 일군을 바라보는 당책임일군의 눈에는 제도모르게 뜨거워졌다. 인제나 제기되는 모든 일에 밟고나서 기발한 착상, 능숙한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 맡은 일을 손색없이 해끼는 일군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궤도전차의 정상운영보장이라는 무거운 임무가 맡겨져있었다.

하루에도 수십가지 일들이 편이여 제기되는 이때단위 실정들 너무도 잘 아는 당책임일군은 그들의 제기에 선포 대답을 줄 수가 없었다.

그의 심정을 읽기라도 한듯이 두 일군이 다시금 말했다.

《궤도전차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면서 거기에 우리 손으로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음이 가는 그들을 대변하게 바라보며 당책임일군은 결심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들어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새형의 궤도전차시운전은 당에서 관심하는 문제를 스스로 받아내서 맡게 될 줄 아는 이런 일군들의 마음속자각으로 부터 시작되였다.

궤도전차시운전 진행되는 버스수리공장은 첫날부터 불

은 온 당에서 격정하는 일이라면 한몫을 장크리 불태워서라도 거기에 지체로 해내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닌 사람에서부터 찾아부수 있는 투쟁기풍이며 일 본새이다.

김일남초급당위원장은 로동자들과 밤잠도 잊고 결사적인 전투를 이어갔다. 이들은 고심 어린 연구끝에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였고 전 동통기에 대한 시험도 완벽하게 진행함으로써 운영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궤도전차의 불조와 계동장치 등을 맡은 창건전지체인도 시작부터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다. 하루에도 궤도전차운영에서 제기되는 사업소의 수십가지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새형의 궤도전차시운전을 동시에 밀고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년로한 몸이었지만 전투장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자기의 온 힘을 장크리 바치였다.

인제나 그 과중한 육체적부담으로 현장에 쓰러진 창건전지체인이 병원에 구급으로 실려간적이 있었다. 그는 의식을 차리지 마자 현장에 달려왔다. 잠깐 놓여 로동자들이 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의 등을 떠밀고 창건전지체인은 혼연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 걱정은 말라구. 궤도전차를 생산해야만 때까지는 절대 그 쓰러지지 않아요.》

그는 불사신처럼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제기되는 모든 일에 선봉자로 애를 붙여왔다. 지체인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은

김척공업종합대학 나노물리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

출기찬 탐구전, 실력전을 벌려

올해에 통속된 가치있는 첨단기술제품들은 언제나 김척공업종합대학 나노물리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무 거기나나노물리학과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천연광물자원에 의거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실력으로 제작하여 나노물리학과는 그 리용범위가 대단히 넓은 실용성이 있는 제품이다.

누구도 길어본적이 없는 초형형이 주지없이 뛰어들어 첨단과학의 높은 병마루를 정복해가는 김척의 삶의 참된 보람을 찾는 나노물리학과 연구실의 과학자들.

우리는 이들이 끊임없이 이어온 탐구의 자욱을 더듬어보며 자각력을 생명력으로 뛰어넘고 첨단과학의 앞장에서 파격히 돌진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기개를 마음속 다스리고 안아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단물리학과는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투노전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무거기나나노물리학과를 처음으로 시작해낸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었다. 세계적으로 막부리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분야에서 거대한 번혁을 가져왔다. 나노물리학과는 세계적발전추세에

기초하여 실장은 새로운 연구목표를 세웠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점토를 리용하여 나노물리학과를 개발하자.) 연구소일군들과 대 학당조직에서도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 해주었다.

하나 연구사업은 결코 험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는데만 무려 6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연구사업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고심어린 노력 끝에 과학자들은 나노물리학과를 제조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연구사업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나노물리학과를 제작하려면 여러가지 특정한 분해 및 분급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야 하였다.

하루 치음으로 제기된것이 판형지체를 만들수 있는 압출성형기제작이었다. 누구도 만들어본적이 없었고 도움받는데도 없었다.

자체의 힘으로 만들것을 결심하고 달려들었지만 그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이 많았다.

겨울에는 실례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땀을 흘리고 주저하고있을 때였다.

《첨단과학의 요소를 정밀하는 김일남 재 설계가 없었고, 실례에서 주저하면 안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을 때였다.》

백운성장이의 이름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심장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압출성형기의 구조를 새롭게 개조하고 지지체의 조성성분을 바꾸기를 그 뜻만, 모두가 지지체 힘들었지만 누구도 물리학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과학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 원산수산대학에서 -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김척공업종합대학 창립 70돌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 진행

김척공업종합대학 창립 70돌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이 21일부터 25일까지 김척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김척공업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60여 대학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68개 조로 나뉘어 경연하였다.

경연에는 학생들의 수학,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이고도 폭넓은 지식, 높은 알고리즘적 능력, 프로그램작성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고 나라의 정보과학을 떠메고 나갈 비바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자기들의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연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리파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최친군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25일에 진행된 폐막식에는 68개팀의 학생들에게 포상장이 수여되고 격찬한 시상식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망강도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탐사차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 도에서는 많은 탐사차들의 운영을 보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고 그 요구대로 심미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탐사차 매우 중요하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기 혁명전적지탐사차들을 위해 도

김척공업종합대학 창립 70돌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이 21일부터 25일까지 김척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김척공업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60여 대학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68개 조로 나뉘어 경연하였다.

경연에는 학생들의 수학,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이고도 폭넓은 지식, 높은 알고리즘적 능력, 프로그램작성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고 나라의 정보과학을 떠메고 나갈 비바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자기들의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연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리파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최친군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25일에 진행된 폐막식에는 68개팀의 학생들에게 포상장이 수여되고 격찬한 시상식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운행길에 새겨가는 충정의 마음

망강도혁명전적지관리국 탐사차사업소에서

로를 잘 닦고 그들이 배스를 타고다니게 하는것이 좋을것이다고 호시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망강도혁명전적지관리국에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탐사차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탐사차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망강도혁명전적지관리국 탐사차사업소에서는 내부예비를 철저히 탐구하면서 수리장비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문건기계의 관리들을 보장하는데 힘을 쏟고있다.

사업소에서는 탐사차들의 움직임에 필요한 구급약품과 장비를 고적구적인 대책을 세워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운전사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모범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옹호할수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있다.

운전사들은 기동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운행중 점검을 신경에 맞게 진행하면서 높은 운영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들은 탐사를 보장하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서로 돕고 이끌

이신작적은 위력한 선동

김척공업종합대학 창립 70돌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이 21일부터 25일까지 김척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김척공업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60여 대학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68개 조로 나뉘어 경연하였다.

경연에는 학생들의 수학,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이고도 폭넓은 지식, 높은 알고리즘적 능력, 프로그램작성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고 나라의 정보과학을 떠메고 나갈 비바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자기들의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연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리파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최친군대학, 김척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25일에 진행된 폐막식에는 68개팀의 학생들에게 포상장이 수여되고 격찬한 시상식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면서 차수리와 정비에 힘을 넣어 운영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수리공들의 전문원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많은 부족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탐사차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탐사차운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정통교양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 밑에 탐사차운영사들은 항일의 전구들을 찾아 애국충정의 운영길을 계속 걸기차게 이어가고있다.

【백괴기자 전철주

장가까이에 새로 꾸민데 대한 장밋적인 견해를 제기하고 그 사업을 앞장에서 이끌어 갈비힘의 보수정비시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이 나날 작업원은 2중26로 모범기대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부무를 잃고 함속에서 혼로 생활하고있는 작업원의 리용수가 있고있을 때 수심리길을 오가며 마련한 보약을 안겨주어 그가 짧은 기간에 병을 떨고 일어나게 하였으며 안해가 없던 일을 자식을 대하고 살았다는 김동무의 생활을 전할수있는 점으로 보아서 그가 조직과 집단의 사랑으로 헌신자로 자라면서 선동한 것이다.

이신작적보다 위력한 선동은 12년간 사업해오고있는 그의 신념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첨단개척의 길에 바쳐진 값 높은 삶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과학기공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공훈과학자 박사 윤원남동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연구소에 갓 들어온 김진성동무가 몇몇의 실례를 거듭하며 마음이 약해졌기 있었다. 그때 윤원남동무는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하였다.

그는 김진성동무에게 원칙적인 충고도 받고 함께 밤을 새우며 실험을 창조해주시기도 하였다. 집에서 가져온 소박한 음식을 앞에 놓고 수저도 들리지 않았을 때라도, 담을 받들어 과학탐구의 한걸음씩 함께 가자고 고무해준 윤원남동무의 모습을 오늘날도 김진성동무는 잊지 못하였다.

진정 연구소의 연구자들에게 있어 윤원남동무는 당의 품속에서 지낸 과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가르쳐준 참된 스승과 같았다.

윤원남동무의 안내 장영옥녀성의 말에 의하면 그는 평생을 노예 《예속》을 즐겨보았다고 한다.

《예속》

아마도 그것은 과학자로서의 삶과 조명을 최상의 경지에서 내어주는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윤원남동무의 다짐있는 감사의 노래였리라.

아직은 나라를 위해 내놓은 일이 얼마 없었던 미해과학자로서의 공헌같은 새 집도 제일 먼저 안겨주고 과학연구사업에서 다스리나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공훈과학자의 칭호도 안겨주도록 한 어머니였다.

당의 대제같은 사랑과 믿음은 윤원남동무가 헌신의 봉우리를 향하여 힘들어도 주저없이 끝까지 가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손길이였다.

그 손길이 있어 그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첨단과학의 길에서 손간도 풀리지 않고 자기의 생을 빛나게 마무리할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6월초부터 윤원남동무는 때때로 온몸이 나른해지는것을 느끼곤 하였다.

연구소의 일군들이 어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병원을 통로 떠밀 때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당이 믿겨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전에야 쓰러질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쓰러지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당중앙검사위원의 뜻으로 심신을 불태우며 연구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형이 쓰러졌다.

뒤늦게야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연구사들에게 윤원남동무는 연구과제를 완성했다는 한 말만더러 남기고 다시 눈을 뜨지 못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49살이었다.

당에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의과학발전을 위하여 애쓰다가 순직한 그를 내려가다 앞으로 내세워주었으며 높은 국가수훈도 안겨주었다.

윤원남동무가 의과학기공연구소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한다는 불과 4년.

하지만 그에 대한 통지들의 추은은 앞으로 참다.

불운한 과학자, 참된 당원... 윤원남동무는 우리 시대 과학자는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며 당에 대한 과학적사회의 충성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자기의 길지 않은 헌신으로 보여주었다.

오직 당에 헌신하면 어떤 고난이든 고결한 인생행로를 지니고 첨단개척의 길에 가정도 희망도 생애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이런 참된 과학자들이 있어 우리 조국의 전진이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정영철

